

法水寺址와 遺物

尹 容 鎮

慶北 高靈에서 大伽川은 安林川과 갈라진다. 여기서 다시 大伽川을 5Km 따라 올라 가면 小伽川과 分離된다. 法水寺址는 이 小伽川의 上流 溪谷에 자리잡고 있으며 分岐點에서 約 10Km 可量된다.

法水寺址로 가는 길은 이 溪川을 따라 가는것과, 星州郡 修倫面 事務所에서 크개를 넘어서 가는 길 (8Km) 두개가 있다. 寺址는 現在 部落과 田·畚 등으로 化하여 金堂址의 石築을 除外하고는 明確히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礎石·石砌 등이 散在하는 密度와 範圍로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石塔이 遺存하는 地帶는 約 10斗落으로서 金堂址라하며 石築을 쌓아서 一段 높게하여 平平하게 했다. (古蹟圖譜 第四卷 法水寺址 參照) 金堂址에는 石塔 外 佛座臺와 石燈臺石 礎石 등이 散在하고 있다.

金堂址 아래쪽에 部落이 現在있으며 마을 앞 左右 邊에 幢竿支柱와 拜禮石이 遺存한다. 마을 안에 礎石·石砌이 散在하는것을 보아 이곳도 領內였음을 알 수 있다. 金堂址에서 뒷山으로 溪川을 따라 約 200m 可量 올라 가면 미륵堂이라 불리워지는 곳에 座佛과 石象 石獅子 外 佛像 二基가 있다. 이 溪谷을 따라서 올라 가면 龍基寺에 이른다. 龍起寺로 올라 가는 途中 兩便에 작은 골짜기 많이 있는데 골짜기마다 庵子址의 名이 붙어 있음을 보아 法水寺의 規模를 짐작케 한다. 또 이 溪谷에는 城壁이 아직 남아 있었다. 龍基寺를 지나 山嶺을 넘어서면 海印寺에 이른다. 龍起寺址에는 現在 石槽만 남아 있었다.

法水寺의 創建과 廢寺에 對한 由來는 全然 알 수 없고 이곳 地方誌인 京山誌에도 寺名과 規模를 傳할 따름이다.

「法水寺—在伽倻山南 不知廢於何時 諺傳 有九金堂 八鍾閣 無慮千間 石佛 石塔 石柱 石砌 瀾漫山腰 四房 寺庵遺址 幾至百數 山隈耕其海松繞茂盛……」(京山誌 佛亭)

塔을 爲始한 石造物 및 瓦當片의 彫刻樣式으로 보아 新羅統一 前半期에 屬하는 것이다. 볼 수 있다

遺 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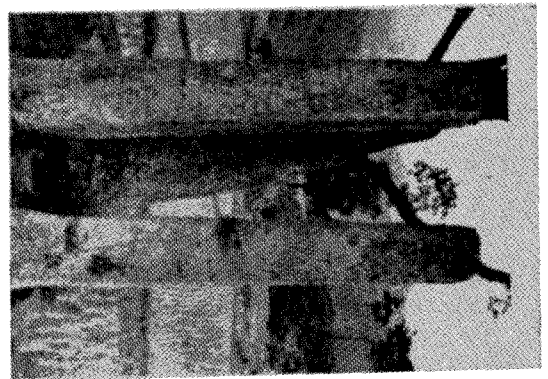
1. 幢竿支柱

마을 앞에 完全하게 遺存되어 있다. 方形의 支柱는 三段으로 하여 올라감에 殺減되었으며 支柱 가운데에는 圓錐形의 幢竿 받침이 있다. 支柱앞에는 陽刻된 蓮花紋이 있는 拜禮石이 있다.

支柱의 高는 370cm, 拜石의 縱 65cm, 橫 125cm, 高 21cm. (高眞 1)

2. 拜禮石

마을 앞 길 가에 放置된 채 遺存한다. 側面에 蓮花紋이 있고 上部 바닥에는 中央에 陽刻의 蓮花紋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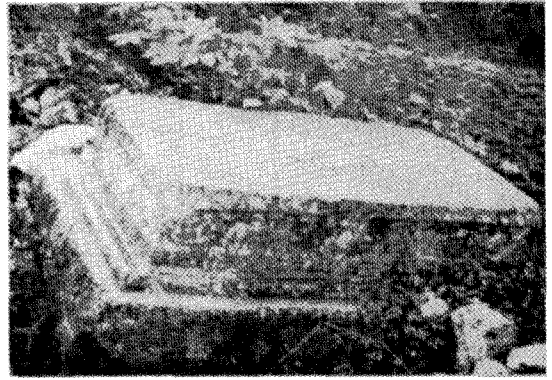


寫 眞 1

高 30cm, 縱 84cm, 縱 155cm. (寫眞 2)

3. 石塔

金堂址에 遺存하며 新羅一般型의 三重塔으로서 上輪部가 損失되었을 뿐 잘 保存되어 있다. (古蹟圖譜 第四卷 參照)



4. 石佛下臺

八角形으로서 伏蓮瓣을 둘렀고 그위에 피임의 段이 있다. 高 39cm, 上部 八角形의 一邊이 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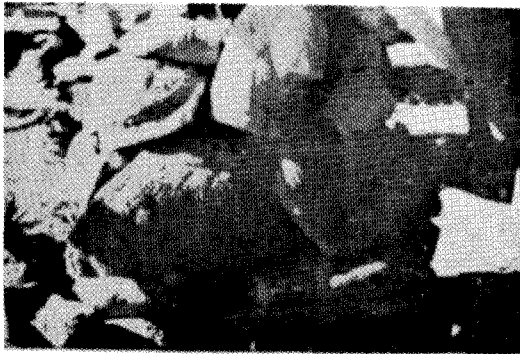
5. 石燈臺石

四角形 위에 蓮瓣으로한 臺로서 石燈柱를 받는 곳은 八角으로 되어 있다. 蓮花紋臺下經 96cm

6. 石象

粘盤岩으로된 像으로서 火災로 因하여 若干 破損되었다. 此石象은 長方形臺石과 붙어서 彫刻되어 있었으며, 石象 그 自體는 他石物을 받히기 爲한 臺가 아니고 獨立된 石物이다.

高 50cm, 長 100cm, 幅 48cm. (寫眞 3)



7. 石獅子

石象과 一雙으로 된것이며 크기도 같다. 火災로 因한 破損이 極甚하여 前半身이 없어지고 頭部가 없어서 獅子라 斷定하기는 더욱 困難하였으나 殘部의 驅身に 있는 紋樣 等を 보아 獅子라 假定하는 바다. 特記한 만한 것은 足部가 sphinx의 발 모양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臀部와 尾는 石象의 것과 같았다. (寫眞 4)

8. 石佛三基

A. 石像과 石獅子 사이에 座臺 위에 安置된 것으로서 亦是 火災로 因하여 前面 全體와 後面 一部가 破損되어 佛名은 알 수 없다.

座臺는 八角柱上下에 蓮花紋臺가 있었다. 石佛 만의 高 110cm, 下部의 幅 70cm.

B. 現在 石獅子 石象 위에 各各 一基씩 놓아 두었으나 元來의 位置가 아니며 頭部와 大部分이 破損 軀體의 彫刻도 磨滅되어 있었다.

附記

法水寺에 對하여 輿地勝覽에는 一切 所見이 없고 古蹟圖譜 四·五卷에 寺址·石塔·瓦當 같은것은 紹介되어있다. 本寺址의 由來는 앞으로 同人諸位께서 敎示를 바라는 바이다.
<筆者 慶北大學校 講師 >

